



관내 동향

□ 사천시, 항공제조업 기반유지를 위해 20억 원 지원

- 사천시는 주력산업인 항공 제조업 기반 유지·육성을 위해 관내 48개 항공제조업체에 총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
- 지원대상은 관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항공기·우주선 및 부품제조업으로, 고용인원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, 상수도 요금 등 경상경비 일부를 5월 중 차등 지원할 계획
- 사천시는 보잉737 Max 운항 및 생산 중단 등으로 위기에 놓인 항공 기업을 지원하여, 항공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유지하고 숙련된 기술 인력을 지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
- 송도근 시장은 “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, 사천시의 주력 산업인 항공 제조업 기반 유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함

□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, 사천시와 항공산업 협력안 논의

-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 코리아 대표 (파브리스 에스피노자)가 4월 29일 사천시청을 방문
- 이날 에어버스 코리아 대표는 송도근 사천시장과 항공산업 발전 방향과 절충교역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
- 송도근 시장은 현재 조성 중인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(사천지구)에 에어버스 협력업체의 입주를 부탁하며 “코로나19로 인한 에어버스사의 어려움에도 사천시 항공기 부품업체에 발주 물량을 확대해 줄 것”을 제안

- 에어버스 코리아 대표는 국내 에어버스 생산물량의 2/3 이상이 사천시 소재 항공기 부품업체에서 생산되며,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을 중심으로 한 사천시 항공기 부품업체의 우수한 품질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항공 국가산단 협력업체 유치 등 사천시와의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힘

□ 한국항공서비스, 에어버스와 정비분야 기술교류 MOU 체결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의 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(KAEMS)는 에어버스와 5월 11일 정비분야 기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
- KAEMS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내 C-212와 CN-235에 대한 정비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
- 에어버스(ADS)의 체계적인 정비기술과 KAEMS의 정비품질 향상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해당 기종에 대한 가동률 향상도 기대됨
- KAEMS는 에어버스(ADS)와의 협력을 통해 CN-235 성능개량 사업의 참여는 물론, 군 전력화 향상과 국내 항공기정비(MRO) 산업발전 주도
- KAEMS 조 대표는 "ADS와 협력으로 최고의 정비기술과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"며 "KAEMS의 기술을 바탕으로 MRO 분야에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"이라고 강조



- 길이: 21.40 m
- 높이: 8.18 m
- 날개폭: 25.81 m
- 날개면적: 59.1 m²
- 최대속도: 509 km/h
- 장거리 항속능력과 우수한 비행특성
- 뛰어난 단거리 이착륙 성능
- 최대 5톤의 화물을 탑재 가능

CN-235

□ KAI,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에 985억원 투자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은 항공산업 분야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과 생태계 구축에 5년간 985억 원을 투자할 계획
- KAI는 기존 사천 본사의 스마트 공장인 A350동에 인공지능(AI)을 반영해 기능을 고도화하고,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 설비를 고정익동, 회전익동, 부품동, 산청사업장 등 전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
- 아울러 KAI는 항공산업의 디지털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항공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
- 1단계(2021~2022년) 계획은 KAI 자체 투자로 항공산업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고, 실증을 거쳐 검증된 시스템을 협력업체에 전수하는 것
- 2단계(2022~2023년) 계획은 협력사별로 맞춤형 성공 모델을 제시해 스마트 플랫폼을 확대해 디지털 기반의 제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
- KAI 관계자는 "협력사와의 공동대응 체계와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"며 "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항공기업의 공급망 재편 이전에 선제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"이라고 밝힘



도내 동향

□ 경남도, 드론산업육성 민·관·군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

- 경남도는 4월 26일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호텔에서 '경상남도 드론산업 통합 민·관·군 드론협의체 구성 업무협약'을 체결
- 참여 기관은 경남도, 39사단, 국정원 경남지부, 경남경찰청, 경남소방본부, 진해기지사령부, 창원시, 진주시, 고성군, 경남도립거창대학, 경남테크노파크 등 11개 기관

- 이번 협약식은 **경남 드론산업 육성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**을 통해 상용화·방위산업용 드론 기술 개발, 인프라 기반 확충, 인력양성 등을 위해 마련
- 협약에 따라 경남도 등 11개 기관은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▲드론 관련 다양한 행사 공동 개최 및 상호교류 협력 ▲재난·재해 시 장비 및 통합관제체계 운용 협력 ▲드론 상용화·방위산업용 목적 드론 실증 협력 ▲드론전문 인력양성, 드론산업 기반 구축, 기타 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을 추진
- **경남도는 미래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한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**

□ **IAI · 샤프테크닉스케이, 경남서 화물기 개조사업 설명회 개최**

- 지난 5월 4일,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정비(MRO)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IAI와 국내 항공정비 전문업체 샤프테크닉스케이는 보잉 777-300ER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여 수출하는 MOA 체결
- 양사는 합작사를 설립하여 인천공항 4활주로 인근에 있는 항공정비 단지에 **화물기 개조 생산시설**을 구축해 2024년부터 수출할 계획
- 총1조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이 사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품 확보를 위해 **경남지역(사천, 창원, 김해 등)에서 사업설명회**를 열 예정
- 이를 통해 화물기 개조에 필요한 화물전용 도어, 구조 보강재, 조종사 보호격벽, 동체보강 구조물 부품을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 등 사천과 인근 지역의 부품 제조업체들이 생산·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

국내 동향

□ '백신 접종완료시 자가격리면제'에 항공업계 수요회복 기대

- 코로나19 백신을 2번 맞은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정부가 오는 5월 5일부터 출국 후 귀국 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, 항공업계에선 국제선 여객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
- 다만 전체 국민 중 2차 접종까지 받은 비율이 현재 0.5%에 불과해 이번에 도입한 제도가 항공사 수요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이라는 지적
-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들도 있어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외여행 수요가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
- 항공업계는 나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'트래블 버블'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움. 트래블 버블은 방역 우수 국가 간 협약을 체결하면 상호 여행객들에게 입·출국시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
- 업계 관계자는 "해외여행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준비됐지만, 안타깝게도 대상자가 많지 않아 효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"이라며 "향후 상황이 좋아졌을 때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한다."고 말함



해외 동향

□ '블루오리진', 민간인 태우고 우주관광 시작

- 아마존 최고경영자(CEO)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탐사 기업 '블루오리진'이 금년 7월 상업적 우주 왕복 여행을 시작할 전망
- 블루오리진은 직접 제작한 우주여행 로켓 '뉴셰퍼드'가 7월 20일 첫 우주

궤도 관광을 할 것이며 앞으로 5주간 온라인 경매를 진행해 1석을 낙찰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

- 뉴 셰퍼드는 최대 6명이 탈 수 있고 시험 비행에서는 고도 100km 이상까지 올라가 승객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10분 동안 창문을 통해 우주를 볼 수 있게 됨
- 로이터는 베이조스가 앞서 뉴 셰퍼드의 티켓 가격을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블루오리진이 경쟁 업체인 ‘버진 갤럭틱’이 우주여행에 책정한 가격인 20만~25만 달러(약 2억2000만~2억7000만 원) 수준에서 티켓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함



우주여행 로켓 '뉴 셰퍼드'의 내부

작성일	2021. 5. 13.(목)	보고일	2021. 5. 18.(화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오은미(055-831-3470)